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check ME up!

Macro

Event

2025년 7월 2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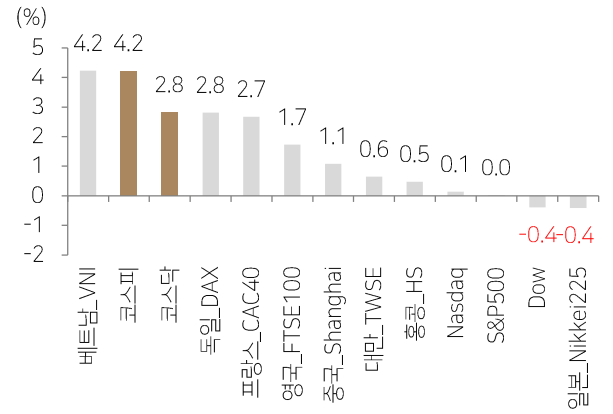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3p*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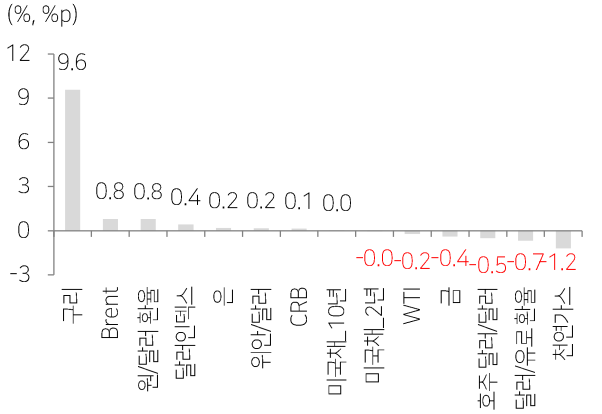
I .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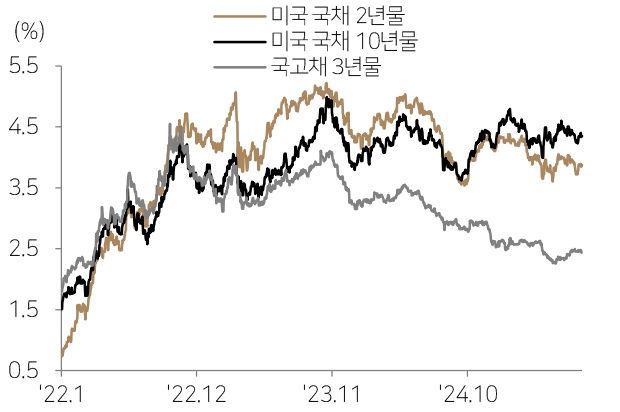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7/4일 대비 7/10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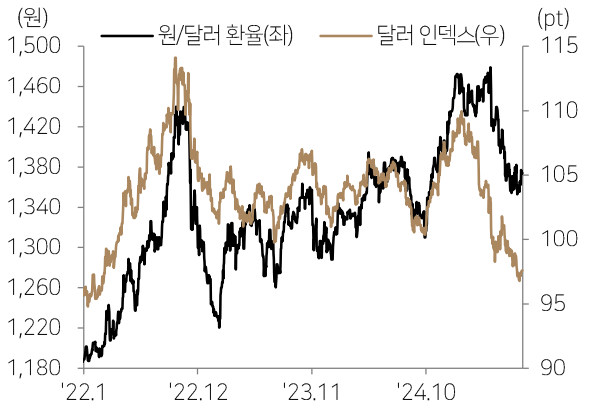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7/4일 대비 7/10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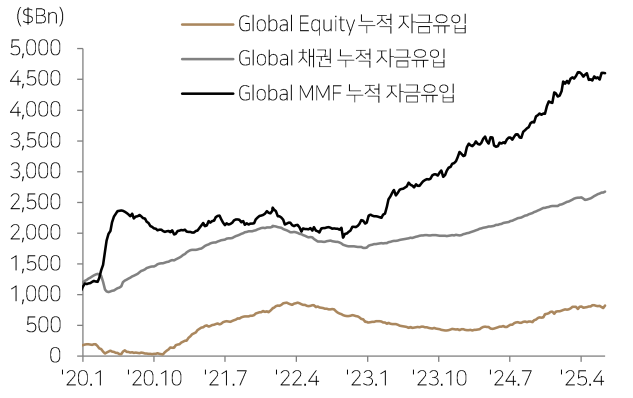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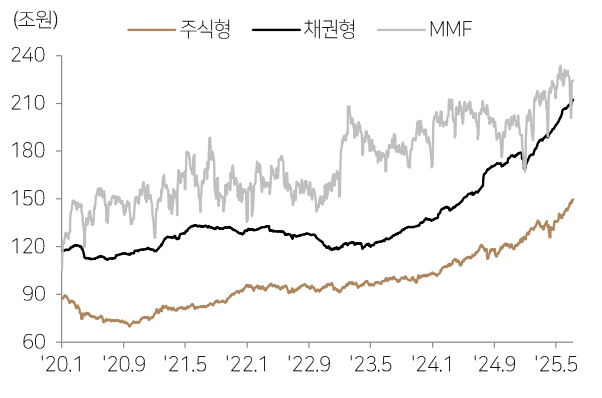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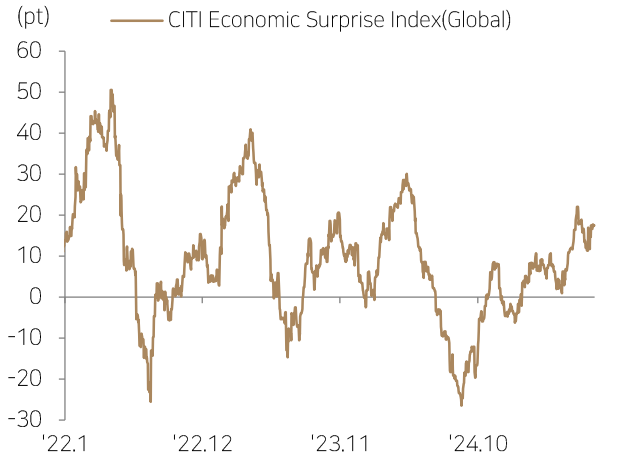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 7월 부과 예정이던 관세는 서한 발송과 함께 일단 8월로 약 3주간 미뤄진 상태.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발생 이전이지만 미국 CPI 전망치는 높게 형성. 전월 2.4%였던 CPI가 6월에는 2.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중. 6월 CPI는 이란 이슈에 따른 일시적 유가 급등 영향일 수 있지만, 이후 상호관세 및 구리 등 항목별 관세가 적용될 8월부터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확대될 소지가 있음. 주 후반에 발표되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의 상승 여부도 주목할 필요
- 미국의 소비 위축 가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변수. 아직 메인 고용지표들의 악화가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노동 시간, 해고 예고 건수 등의 지표들은 기존에 비해 고용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또한 주간 리테일 트래픽 변화율이 2분기 내내 전년 비 마이너스 영역에서 위치하고 있어 소비경기가 위축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5-07-14	중국	6월 수출/입	%yoy	5.2/1.9	4.8/-3.4
2025-07-15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yoy	5.1	5.4
2025-07-15	중국	6월 소매판매	%yoy	5.1	6.4
2025-07-15	중국	6월 산업생산	%yoy	5.6	5.8
2025-07-15	중국	6월 실업률	%	5.0	5.0
2025-07-15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6	2.4
2025-07-16	미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2.5	2.6
2025-07-16	미국	6월 산업생산	%mom	0.1	-0.2
2025-07-17	유로존	6월(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2.0	1.9
2025-07-17	미국	6월 소매판매	%mom	0.1	-0.9
2025-07-18	일본	6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3	3.5
2025-07-18	미국	7월(잠정)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Index	61.3	60.7
2025-07-18	미국	7월(잠정)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율	%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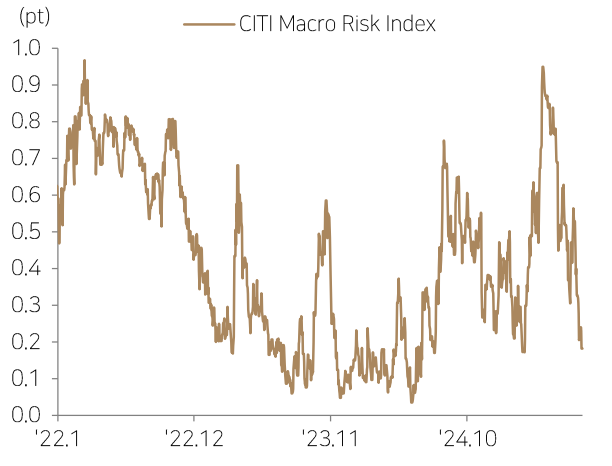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7월 2주	미국	중	주요 기업 실적 발표	▪ (해외) 15(화) JP모건, 블랙록, 씨티, 웰스파고 / 16(수) BofA,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존슨앤존슨 / 17(목) TSMC, 넷플릭스, 노바티스, 애보트 ▪ 15일 JP모건을 시작으로 미국 실적시즌 시작. 미국 금융주와 더불어 TSMC 등 기술주 또한 실적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실적 결과 및 가이던스의 예상치 부합 여부에 따라 증시에 영향 줄 가능성 존재
7/17	미국	중	연준 베이지북 공개	▪ 한국시간 기준 7월 17일 오전 3시 연준 베이지북 공개 예정. 6월 공개된 베이지북에서 연준은 12개 관할 지역 중 절반에서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감소한 것으로 진단. 또한 12개 전 지역에서 경제 및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 7월 3일 공개된 6월 고용보고서에서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며 고용 불안이 후퇴한 바 있으나, 월초 ADP 고용자수가 예상치를 대폭 하회한 바 있음. 베이지북에서 고용시장 위축 관련 코멘트가 나올지 주목
7/17	글로벌	중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의	▪ 현지시간 7월 17일 남아공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 진행. 이번 회의는 2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 ▪ 외신은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오사카 엑스포 참석을 위해 G20 재무장관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도. 베센트의 불참에 다소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으나 주요국 재무장관 간 논의 내용이 화두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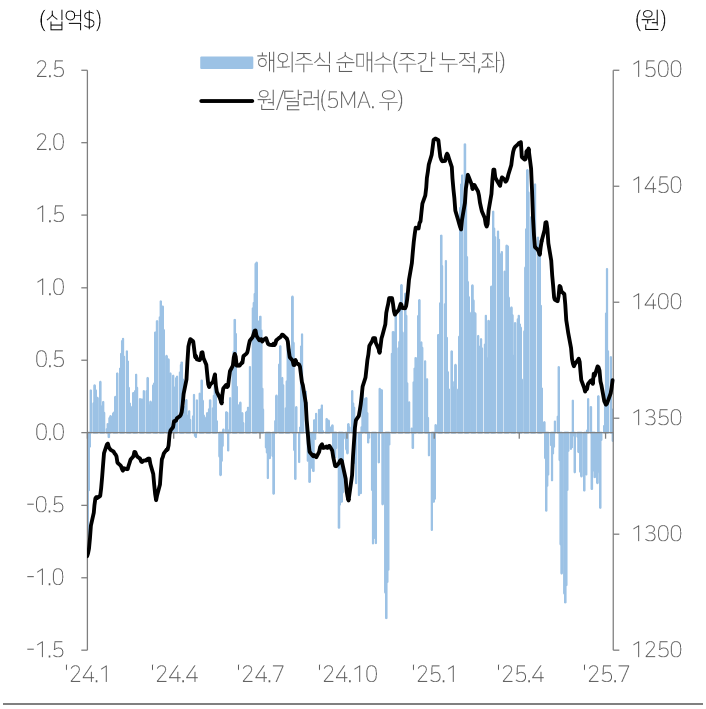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7/7~7/10) 증시 동향	▪ KOSPI(+4.2%), KOSDAQ(+2.8%) 상승. KOSPI는 증권(+12.0%), 상사,자본재(+9.6%), 보험(+9.6%)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IT가전(-1.6%), 철강(-0.5%), 디스플레이(-0.5%) 업종 하락. 주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관세율 25%가 명시된 서한을 공개하며 무역 불확실성이 대두되었으나, 시장은 8월 1일로 미뤄진 관세 부과일자에 주목. 삼성전자가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하는 잠정실적을 발표함에도 여당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추진 소식에 상승 폭 확대, 코스피 연고점 경신 ▪ DOW(-0.4%) 하락, S&P500(0.0%), NASDAQ(+0.1%) 상승. 미국증시는 관세서한 발송 및 구리 품목 관세 부과 예고 발언에 따라 등락.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연준 위원들은 두 번의 금리인하에 동의하나 인하 시점에 있어 엇갈린 양상을 보임. 미국채 금리는 관세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부각에 10년물 금리 4.4%대로 상승. 달러 인덱스는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97포인트로 상승
차주 (7/14~7/18) 증시 전망	▪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주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음.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에 집중되던 자금 일부가 증시로 유입된다면, 글로벌 증시 대비 디스카운트가 완화된다면 등의 가정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장기적 기대는 유의미하다고 판단. 그러나 최근 자료에서 거듭 언급한 바와 같이 7~8월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요인들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있음 ▪ 다음 주 발표될 경제지표 가운데 미국 CPI의 상승과 소비 부진이라는 조합이 등장할 경우 펀더멘털 여건 및 연준에 대한 고민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기간 조정의 형태로 누적된 기술적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여전히 포커스는 기존 주도주에 있다고 판단하나 기술적 부담에 따른 순환매 시도도 빈번할 듯. 최근 중국 정부의 공급 측 개혁에 대한 뉴스들이 빈번해지고 있음. 이를 감안하면 철강, 2차전지 등의 순환매 대상으로서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을 듯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Ⅳ.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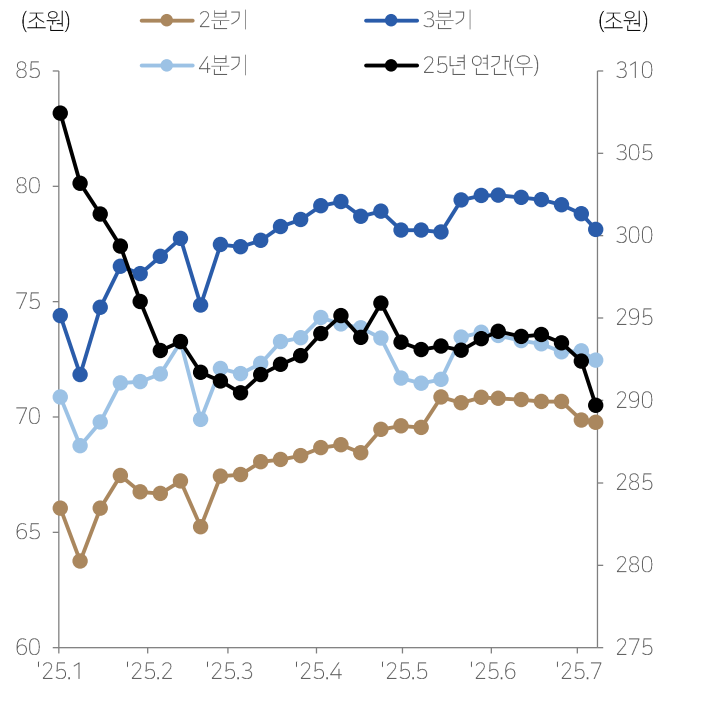
환율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국내 자금의 해외투자, 미국 증시 회복과 함께 재차 증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2분기 중 가파른 원화의 강세가 진행. 원화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수출이 크게 부진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 달러 관점에서는 트럼프가 4월 초 관세이슈를 본격적으로 부각시킨 이후 오히려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신뢰 저하가 달러의 약세를 야기하는 상황이 발생
- 이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도 저하 역시 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 연말부터 급증했던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이 4~6월 크게 감소. 이 같은 자금 흐름의 변화가 원화의 가치 회복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6월 하반월 미국 금리 변동성이 완화되고, 미국 증시가 전고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금액은 재차 빠른 증가세를 보임. 연초 나타났던 만큼의 집중력과 연속성은 아니라고 해도 상당한 강도의 매수세가 형성되는 모습. 추세적인 원화 강세를 예단하기 보다는 당분간 환시장의 변동성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에 주의

1분기 실적시즌 이후 추가 하락이 방어되던 KOSPI 이익 전망치, 2분기 실적시즌 시작과 함께 하향 조정이 재개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2분기 실적시즌이 도래하면서 이익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재개되고 있음. 1분기 실적시즌을 통과한 이후 한동안 견조한 전망치 흐름이 이어졌으나, 삼성전자 실적 부진 등을 반영하면서 하향 조정이 재개.
- 25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289.7조원으로 6월 말(-2w) 293.5조원에서 -3.8조원 하향. 순이익의 경우도 220.6조원으로 같은 기간 222.7조원에서 -2.1조원 하향 조정. 연간 이익전망치의 하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IT가전(2차전지)이며, 반대로 상승 기여도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증권, 유틸리티, 상사/자본재(지주, 방산), 조선, 운송 등이 있음
- 컨센서스 기준으로 QoQ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최근 전망치 하향 조정과 함께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은 -2.8%로 집계되고 있음. 한편, 하반기 이익전망과 관련해 2010년 이후 분기 별 계절성을 계산해 보면, 4분기는 당해년도 분기영업이익 금액 대비 -17%가량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올해 4분기 전망치는 +1%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